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왜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이는 심각하게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되는 문제인데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를 놓치고 살고 있다. 구원의 골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나라에 거하다가 장차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인도받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 구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현존의 하나님나라의 중요성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며 반드시 현존의 하나님나라에 거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나라를 알지도 또는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원죄의 내용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반역한 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죄이다. 결과적으로 타락하여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성품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의 체질과 성품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타고난 체질이나 후에 형성된 성품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점차적으로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왕같이,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만큼은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소욕과 생각(롬8:7)은 철저히 쳐 내고 주께 복종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고전9:27).

왜 이래야만 하는가? 우리가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왕같이, 주인같이 멋대로 사는 것은 마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욕심을 내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기에 현존의 하나님 나라안에 거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없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로 잔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성은 버려야만 한다. 불순종했던 말씀으로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로 참 구원의 여부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탄에게서 배운 악습인 왕처럼, 주인같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미련없이 무조건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점을 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질서를 회복하여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우선이다. 이리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로소 참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이 세상을 쫓는 육의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게 되는 것이다. 왕처럼, 주인처럼 멋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사이를 차단하는 성벽을 쌓는 것과도 같다. 이리되면 현존의 하나님나라에 거함을 느낄 수 없게 되고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 볼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서 그곳에 거하며 그 곳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불가사리한 일이라고 하겠다.

진정한 믿음위에 선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갈2:20)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죽어야 하므로 내안에 죄가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순종으로 하나님앞에 바로 서야 한다.

고로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첫째 이 세상을 쫓아 왕처럼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둘째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순종하는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에 걸맞는 변화됨이 없이 살고 있다면, 세상을 버렸다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젖어 있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8월 15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1명 자체파송 74%

## 과테말라 선교의 바람

과테말라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 소식 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과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확신이 듭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깨어 있으라”(마24:42)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과테말라도 백신공급이 극히 미진한데다 한달 전부터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 자그만 나라에 4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지요.

지난주일 과테말라 은혜(La Garcia)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로 드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과테말라 청년들 십여명이 모여서 눈물로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린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성도가 100명을 넘었고 급성장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좁아서 조만간 2부 예배로 나누어 드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라 그라시아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6월에 개최하지 못했던 IUM(목회자 연합회) 2/4분기 컨퍼런스를 8월에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9월말에 3/4분기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La Gracia 현지인 교인중에 Maria라는 가난한 성도의 집이 화재가 났던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지금 재건축중에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재난 지원금을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IUM 목회자 협회 임원목사 회의가 있었는데 최재숙 선교사의 건강을 기도제목으로 올렸더니 협회장 목사가 일주일동안 새벽기도를 Zoom으로 드리자고 선포해서 매일 새벽 6시부터 한시간동안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현지인 목사들의 저희에게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교는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두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기도제목>

1.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2. 부족한 GMI 과테말라 사역 재정이 채워지도록
3. 과테말라 은혜교회(라 그라시아)의 부흥 성장을 위하여
4. 2022년 봄 GMI과테말라 신학교의 개교를 위하여
5. GMI 과테말라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과테말라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

###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주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귀한 후원과 기도 덕분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시 락다운 되어 선교를 하지 못하게 될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 도 코로나 19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곳은 별 소리가 없지만 탄자니아 본토는 아주 심각한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 여러 가정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 한분은 응급 비행기를 예약 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자그만치 2억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텐데 십시일반이라 하지만 누가 그 큰 금액을 계속 나오는 감염자를 후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야지요.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엔 12월18일에 결혼하는 큰아들도 생각나고 86살 되신 어머니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몇일전 뇌 수술을 하셨지만 큰 아들인 저는 어떻게 할수도 없었습니다. 다행이 수술이 잘되었다고 합니다. 몇일 있다가 폐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진단은 폐암 3기라고 합니다. 이래 저래 마음이 어수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를 나몰라하고 떠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12월 초에 끝나는 4학년과 6학년 국가시험을 마치면 큰아들 결혼식에 가야 합니다. 큰아들 결혼식이 12월 18일인데 격리가 12월 16일에 끝나면 2일간 여유가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부모노릇도 형편없고 어머니에게엔 자식 노릇도 형편없이 하는처지가 되었습니다.

1.교회사역

약속된 5곳의 어린이 전도 집회를 모두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는 저희 학교 아이들 찬양단을 세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 이번 전도 집회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집회에 나갔습니다. 매주 빵 600개 정도를 만들어 섬기는 5개 교회와 전도 집회 나가는 교회에 가지고 가는데 많이 만들 땐 900개를 선생님들과 함께 밤새 만들기도 했습니다.

2. 현지 교단과의 연합사역 준비

6월28일 000교단 초청 식사 대접했습니다. 목회자 부부가 37명 왔습니다. 앞으로 000교단 목회자들과 동역해서 이곳 정부에 기독교인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뒤에서 후원하고 앞에서는 교단장과 임원들이 나서서 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단장과 임원 목회자들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어 수시로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지 교제하고 있습니다.

3. 우물사역

그동안 우물도 3곳을 팠습니다. 6월 5일 구디니 정부 유치원 우물 성공. 6월 18일 투투 정부 유치원 우물 성공. 6월 21일 부터 웰레조 마을 우물을 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82메타를 팠는데 우물안에 모래가 많이 있어서 콤푸레샤를 빌려서 청소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물 팔때마다 가슴을 조립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서요. 성공하면 우물을 판곳에 복음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매번 간절한 맘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알라가 지켜준다고... 참 답답하지만 현실입니다. 저희 부부만 열심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4. 학교사역

11월에 있을 4,6학년 국가시험을 위하여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6월에 저희 부부가 장티푸스에 연거퍼 두 번씩 걸렸습니다. 6일 동안 주사를 맞으면서도 사역을 쉴 수가 없어서 떨리는 몸을 이끌고 사역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선교사로 불러 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와중에 CTS에서 개최하는K-가스펠 경연대회에 참여 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을 4중창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시켜 보냈더니 예선에 합격하여 1차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아직 본선 2, 3, 4차 있는데 4차 끝나면 결승입니다. 결선까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펜데믹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아이들의 노래 제목이 "예수님의 선하심"인데 노래를 번역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프리카 언어로 된 노래 가사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학식이 많아서도, 능력이 뛰어나서도, 지혜 많아서도, 약삭 빨라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이라고..... 노래 가사처럼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감사드리는데 저희와 동역자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어머니가 어떤 병이든 잘 이겨 내실 수 있도록
2. 12월18일 결혼하는 큰아이 결혼식 준비가 잘 되도록
3. 몸이 약한 아내가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할수 있도록
4. 4학년과 6학년 아이들이 국가 시험에서 98%이상이 평균 95점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5. 웰레조 마을 우물 성공 할 수 있도록
6. CTS K-가스펠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7. 정부로 부터 중학교 부지를 받을수 있도록
8. 항상 전기가 들어올수 있도록
9. 부족한 교실을 증축할 재정이 채워 지도록

-탄자니아 정부진, 조 그레이스 선교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롬 10:13-15)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전혀 예상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필리핀은 우기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은 꼭 비가오고 바람도 심하게 불니다. 우기철에는 몇 차례 태풍도 겪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태풍과 많은 비로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선교지의 코로나 상황은 계속해서 특별한 비자를 제외하곤 해외에서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입국이 전면금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확진자 통계가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서민들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한 필리핀 정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완화된 정책을 발표하여 안타깝게도 이제는 아이들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역지도 제한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잘(Rizal)지역에 SMIC(SEONGEUN MISSION INTERNATIONAL CHURCH) 교회 장학생들은 계속해서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며 이젠 인도자로 대표기도자로 주일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찬송가가 없는 필리핀 선교지에서 따갈로그로 번역된 한국 찬송가를 구하여 리더교육 시간에 가르쳤는데 이젠 주일예배 중 찬송가를 사용하므로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선교팀들이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서로의 모국어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의 선교사역 방향인 복음과 교육을 목표로 학생들을 중심해서 사역을 진행할 것입니다. 내년(2022도)에도 새로운 학생을 선발하여 교회와 사회에 지도자로 세워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생 한명을 케어 하려면 매달 기본적으로 최소 5만원~10만원정도(차비와 학용품구입)소요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한명씩 케어해 줄 후원자님들과 장학후원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회인근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은 도시빈민 이주촌으로 작은 놀이터조차 없는 실정이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회 건물을 마련하여 이전하고, 현재 교회를 교육관 및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 되는대로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카비테 지역 바랑가이 발락박(Brgy. Balagbag)은 저희가 처음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곳으로 계속해서 태풍과 화산폭발등 자연재해가 연달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어 마을과 교회가 무너져 없어지고 리더인 Ninfa 가족과 몇몇 사람들이 교회와 마을 복구를 위해 살고 있는데 최근 또 다시 따알 화산 활동이 재개되어 현재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카비테지역 교인들과 주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한국에 귀국하지 못해 건강검진과 보조기,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지 못해 걱정했는데 7월23일 저녁, 제주어어로 한국에 귀국할 예정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국하면 자가 격리를 2주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가 격리는 순천에 계신 어머님 댁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1. 하루속히 코로나 19가 종식되고 진정되도록
2. SMIC(SEONGEUN MISSION INTERNATIONAL CHURCH)교회가 잘 성장 될 수 있도록
3. 선교사로서 영성과 선교의 문(SMIC)이 활짝 열리도록
4. 현지 언어가 잘 습득될 수 있도록
5. 화산으로 인해 폐허가 된 선교지 발락박(Brgy. Balagbag)지역과 SMIC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6. 선교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리더교육에 필요한 물품과 장기적으로 새로운 자동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7. 장학생(리더)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후원자님들과 장학후원금이 생길 수 있도록.

-필리핀 박성용 미경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체장암 재발견, 8/19피검사 후,8/20 담당 의사들과 상담예정인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네팔 이예신 선교사- 암이 림프암 변이종에서 전이가 되었으며, 8월 5일날 새벽 6시 응급실로 들어와서 병실이 없어 응급단기 입원실에서 망가진 신장치료를 하고 있으며 차후 림프암 항암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첼라빈스크 김봉년 선교사- 5/11일 부터 주 5일 받던 호르몬 치료 결과 암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3개월 후에 치료를 받으십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4.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시나,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중국 박OO- 심장 수술 후 회복 중이시며 한번에 수술이 더 남아 있습니다. 회복과 수술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사할린 김성민- 사모님인 김지경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 심장, 간 면역력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8. 러시아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심장과 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9. 파나마 김재한 선교사 -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이 나와서 9월 16일 수술 예정 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평강의 손길을 기도 부탁드립니다.